

뷔드로 감독 '본투 비 블루' 개막작으로 상영

음악적 성공 그러나 약물과 술 중독 쳄 베이커의 교차된 삶 다뤄

로베르 뷔드로 감독의 '본 투 비 블루'가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상영됐다. 이 영화는 미국의 재즈 음악가이자 트럼펫 연주자인 쳄 베이커의 80년대의 지난했던 삶을 담았다.

〈본 투 비 블루〉 2015는 음악적 성공과 약물과 술 중독으로 인한 몰락이 교차하는 전기 영화인 동시에 쳄 베이커의 삶을 재즈 연주와 겹쳐서 보여준다. 그리하여 영화 후반부의 쳄 베이커가 무대에 오르는 장면은 굴곡의 세월을 넘어서 재즈 그 자체로 남겨진다.

또한 음악과 연출뿐만 아니라 쳄 베이커라는 복잡한 인물을 표현해 낸, 주연배우 에단호크의 연기 또한 흥미롭다. 이상용 프로그래머.

다음은 영화 감독 로베르 뷔드로와 작곡가 데이빗 브래드의 질의응답이다.

▲ 극적인 삶을 살아간 수많은 음악인들 중에 쳄 베이커의 일생을 조망한 이유는?
감독 : "재즈음악의 뮤지션은 대부분 흑인 위주였는데, 변방지역 출신인 백인이 즉흥적 연주로 재즈음악을 리드 했다. 심지어 재즈의 선구자인 흑인뮤지션조차 그의 음악세계를 존경한다는 이력이 독특했다. 이런 영웅적 모습을 담은 그를 영화에 그려내고 싶었다. 또한 그가 몰락의 상황에 직면했다가 다시 살기 위해 컴백을 할 즈음인 80년대는 이미 재즈 인기가 시들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재기를 하는 모습이 극적으로 보여 영화로 담고 싶었다."

▲ 영화에 흐르는 음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 했나?
작곡가 : "재즈 음악은 틈새 음악으로 간주돼 대중적이지 않다. 재즈를 모르는 관객을 위해 대중성을 고려, 유명하고 친근한 곡 위주로 영화에 삽입했다. 영화 내용도 사랑 중독, 인종에 대한 보편적 이야기여서 음악도 이에 맞춰 의도적인 선곡을 했다. 그 예로 'Over the Rainbow'를 들고 싶다. 그 음악은 쳄 베이커의 일생의 부활 신호 음악 간주할 수 있겠다"

▲ 프로그래머 이벤트 : 클래스에서는 로베르 뷔드로 감독과 황덕호 재즈 평론가가 자리해 영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 일시- 30일 오후 5시 30분(본 투 비 블루)상영 후, 메가박스 전주객사 4관

▲로베르 뷔드로 감독은 1974년 캐나다 출생.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이며 토론토와 LA에 베이스를 둔 프로덕션 컴퍼니의 프로듀서이다. 그가 제작한 작품으로는 스틸컷 〈솔로〉2013, 각본을 쓰고 제작한 〈뱅스타스〉2013, 코미디영화 〈큐비를 워리어스〉 2013 등이 있으며, 그의 장편 데뷔작인 〈그 아름다운 어딘가〉 2006은 캐나다의 아카데미 어워드라 불리는 지니 어워드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오직 음악만을 순수하게 갈망했던 그의 음악적 봉날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만나 볼 수 있다. / 정해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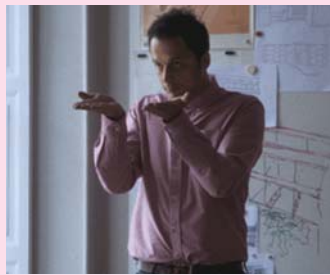
미국의 재즈 음악가이자 트럼펫 연주자인 쳄 베이커의 일생을 담은 〈본투 비 블루〉

전주국제영화제

2016 4.28~5.7



델타 보이즈 스틸컷.



'세인트 고든스의 건축가' 스틸컷



'식스티 식스' 스틸컷



노후대책 없다 스틸컷.

눈부신 봄날 귀가 즐거운 음악 영화속으로... '델타보이즈' 등 8편 주목

영화 속에서 음악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매개 장치다. 음악이 미완에서 완성으로 가는 과정을 주시하다 보면 난해한 영화의 내용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면 음악영화부터 섭렵해 보자.

▲델타 보이즈-고봉수 2016년 작 밀비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네 명의 남자들이 남성 4중창 대회 참가를 준비한다. 어딘가 조금씩 모자라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우여곡절 많은 젊은이들의 고군분투를 그려내는 기발한 유머 감각의 영화

▲세인트 고든스의 건축가-세르주 보종, 2015년 작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한 건축가가 자신이 설계한 건물들을 찬미한다. 뮤지컬 영화 세인트 고든스의 건축가는 파레네 산택의 작은 마을의 일상을 무대로 주민들의 춤과 노래를 선사한다.

▲식스티 식스-루이스 클라, 2015년 작 12년간 이어진 루이스 클라의 폴라주 작업을 집대성한 작품. 6.70년대의 팝 음악과 빈티지 코미디의 이미지로 구현된 노아르와 그리스 비극이 에로틱하고 멜랑콜리한 과거로 우리를 초대한다.

▲노후 대책 없다-이동우, 2016년 작 서울의 펑크밴드들이 도쿄에서 개최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하드코어 펑크 음악 페스티벌에 초대된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펑크 밴드들의 생각과 메시지가 담긴 로드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계곡가엘 레링글, 2015년 작 알렉상드르 뒤마의 〈삼총사〉를 현대 프랑스 서부의 탄 지방을 배경으로 옮긴 뮤지컬 영화.

▲미국에서 온 모리스-체드 하더건, 2016년 작 빈민가의 홍보 소년 모리스는 자신을 제 2의 노르타이스 B.I.G로 여긴다. 가난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누구 못지 않은 모리스는 아픈 사춘기를 통해 자신

의 일을 깨고 나오려 한다.

▲라디오드림스-박지랄리, 2016년 이란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한 하미드는 작라로서 꿈을 펼치고 중동의 문화를 널리 알리려 하지만 3부 라디오방송국에서 일하며 한계를 느낀다

▲또 한편의 재즈 영화 사무라이 에스-라울 페로네, 2015년 작 아르헨티나의 한 영화감독은 고전 일본검술영화의 전통을 따른 3부작 영화를 제작한다. 복수, 사랑, 귀환을 주제로 한 사무라이의 모험이 남미 리듬과 재즈 선율을 만나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뽐낸다.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4월 29일〉



▷쥐띠

49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니 언행에 주의하라.
60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다.
72년생: 어려움이 따르니 뒷사람의 도움을 잘 해결할 것이다.
84년생: 작은 것에 대한 결심은 맺으나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



▷소띠

49년: 초반에는 어려움이 따르나 후반에는 잘 풀린다.
61년생: 자신도 모르게 주장이 강해지는 운이다.
73년생: 좋은 일하고 희망을 들을 수 있는 운이니 나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라.
85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투기는 금물.
62년생: 문서에 결운이 들었으니 계약을 하거나 문서를 주고 받기에 좋은 운이다.
74년생: 이성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86년생: 욕심을 부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운.



▷토끼띠

51년생: 힘든 상황에 놓였던 사람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좋았던 사람은 어려워지니 대비하라.
63년생: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75년생: 모질고 귀를 함들게 하는 소리가 도움이 되는 운.
8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용띠

52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이를 수 있다.
64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일상의 무로함으로 인해 심신이 무기력해질 수 있는 운.
8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발생하니 마음을 비워라.



▷뱀띠

5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해 하는 사람이 나타나 는 운이니 조심하라.
65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좋게 돌아갈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마라.
7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89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나가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운.
66년생: 정당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곤란함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78년생: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운이다.
90년생: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지출은 삼가라.



▷양띠

55년생: 내부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67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운이니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하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91년생: 하고자 하는일은 망설이지 말고 진행하라.



▷원숭이띠

55년생: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때.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67년생: 금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라.
80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니 언행에 삼가고 상황을 살펴라.
92년생: 지나친 과단은 주위 사람들의 문제를 야기하니 조심하라.



▷닭띠

57년생: 봄에 수확을 하려는 격이니 때를 기다려라.
69년생: 지금 현재는 답답하고 힘들다. 차츰 운이 좋아질 것이다.
81년생: 변해 변화에 무리하지 말고 잘 적응해 나가라.
93년생: 천우신조가 있으니 매사에 순리대로 진행하면 편안해질 것이다.



▷개띠

49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상황을 잘 살펴서 경각심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8년생: 여자와 상대하면 반목이 많이 일어 잘 풀리지 않으니 주의하라.
70년생: 시비가 따르니 불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뒤로 물러서라.
82년생: 좋지 않은 일이 몰려 다가오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59년생: 움직이면 이득이 있고 머물면 손해가 따른다.
71년생: 성급하게 행동하다가는 일이 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83년생: 매사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후에 움직여야 한다.